도시 환경조형물 심의현황에 관한 고찰

- 대도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valuation framework of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in urban space

주저자 : 윤기환 (Yoon, Ki-hwan)
거창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공동저자 : 김진선 (Kim, Jin-seon)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研究論文 Original Articles ● Received : Mar. 25. 2004 ; Accepted : April. 25. 2005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환경조형물의 개요적 고찰
2-1. 도시환경과 환경조형물
2-2. 환경조형물의 개념
2-3. 환경조형물의 유형

3. 환경조형물의 기능
3-1. 환경조형물의 기능적 유형
3-2. 커뮤니케이션 인지과정
3-3. 환경조형물의 이미지 평가요소 및 분석관점

4. 심의제도
4-1. 제도적 고찰
4-2. 설치 프로세스
4-3. 심의방식 및 현황
4-4. 제안

5. 결 론

참고문헌

(要 約)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축물의 환경조형물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 및 심의방법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환경조형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조형물의 인지과정 및 도시환경과 불특정다수의 관람자를 포함한 사회적인 상황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형물의 미술장식제도에 관한 고찰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주요도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중부권의 대전시, 영남권의 부산시, 호남권의 광주시의 주요 4대도시의 공공미술제도와 심의방식을 분석하였다.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건축주와 작가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문화환경 창출이라는 인간 심성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찰하여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미술장식제도가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도시문화환경개선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개선하여 공공미술심의제도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심의방식 및 평가방법의 개념의 틀을 추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evaluation framework of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that are regulated by law in urban spac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framework for better city environment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in urban space was identified and social situations and factors including visitors and the cognitive process of urban environments, were analyzed. This research suggests a new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s and problems of environmental art or formative works. The public regulations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Korean major cities including Seoul, Daejeon, Busan and Gwangju, were examined on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The objective was to suggest an evaluation framework for creating human values of urban culture environment instead of focusing on the matters between the owner of the architecture and the artist of formative works. By identifying socio-cultural value of art decor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improving the level of the public formative art evaluation scheme, this study helps addressing the administrative problems and construct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evaluation to improve urban culture environment for both human and environment.

(Keyword)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evaluation framework, urban space, socio-cultural value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도시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공간에서 인위적 환경이 형성된다. 인간은 환경 속에 더불어 살면서 싫던 좋던 간에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인구가 증가되고 도시의 구조나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도시환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도시의 환경요소의 양과 질은 도시의 기능과 도시인의 생활속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도시의 시각 환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생활환경으로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번 설치된 조형물들은 수정이나 교체가 거의 어려운 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도시 환경조형물은 환경미술의 한 분야로서 단순히 건축물의 미관을 장식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도시공간과 주변공간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도시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가져다준다.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환경조형물 설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1]의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환경조형물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건축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환경조형물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도시의 외부환경은 누구나가 활용하는 공동의 장으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활성화하여 가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는가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개인소유이면서도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환경조형물의 경우 사적공간이면서도 공공성에 입각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로경관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놓인 하나의 상징물 또는 기념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고 독립적인 하나의 작품성격에서 탈피하여, 그것이 놓여지고 보여지는 장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인공적인 도시 공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서 오히려 공공미술로서 인지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된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미술이란 큰 틀 속에 환경조형물의 발전적 대안은 무엇이며 평가도구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도시 환경조형물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그 개념과 도시환경에서의 공공성과 예술성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무책임자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배경에 타당성을 마련하고 대도시의 심의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환경조형물은 이제까지 작품의 심미적인 형식만을 추구한 단순한 도시미화적인 차원으로 머물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질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간과 더불어 감성을 순화할 심리적 요소의 개념이 내포된 평가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내외의 선행연구 문헌자료를 토대로 가급적 최근에 발행된 단행본과 논문, 정기간행물들을 참고자료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둘째, 관련연구동향을 통해 환경조형물의 기능과 유형 등을 추출하며 환경조형물을 지각하는 시각적인지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셋째, 건축물에 있어 미술장식제도의 1%법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심의과정이나 조례 등의 주요사항 및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 및 심의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환경조형물에 대한 심의요소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도시환경조형물은 건축법에 설치의무조항인 건축물과 관계된 환경조형물에 한정하여 다루도록 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4대 도시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제도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본 연구의 방법이다.

2. 환경조형물의 개요적 고찰

2-1. 도시환경과 환경조형물

1) 도시환경의 개념

도시 환경은 산업혁명이후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의 흐름에 따라 도시 형태는 무미건조하고 비개성적인 도시경관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경제와 기능을 우선시하여 도시를 구성하고 개발되어왔다. 진정한 의미로서 도시계획과 환경은 생활과 기능중심의 도시공간 구성에서 정신과 감정을 지닌 인간중심으로 도시문화환경을 창출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이란 인간의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을 뜻하는 의미로서[2], 환경에는 땅, 물, 식물, 공기, 동물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도시의 건물이나 기타 모든 조형물의 공간과 같은 인공 환경이 있다. 인간의 생활환경 중 외적 생활환경에서 이러한 자연공간과 도시공간은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진다. 전자의 자연공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며, 후자는 도시 공간을 인위적 환경,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공간은 의도된 환경, 즉 인위적 환경이라 일컫는다.

도시환경은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개성 있고 친인간적인 도시를 추구하는 것이다. 도시의 경관의 모태가 자연환경이며 생태적, 적응적, 미적, 상징적, 경제적형성이 그 밑바탕이

1) 프랑스의 공공미술제도는 현대미술 장려정책의 하나로서 1951년 제정된 1%법과 1983년 창립된 공공미술주문기금으로 제도화되어 왔으며 취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잊혀진 전통과 건축내제 예술들을 밀접하게 통합하기 위한 예술적 목적을 갖는다. 둘째, 개개인을 최고 세대로부터 현대미술을 접촉하기 위한 예술적 목적을 갖는다. 셋째, 예술가들이 창조활동을 통해 영리활동을 유지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갖는다.

2) http://krdic.daum.net, Daum 국어사전

되며 형식마다 상징미가 포함된다.

도시공간은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작용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여러 조건하에서 효율적인 공간의 이용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도시전체가 하나의 인공 환경으로서 개방된 공간(open space)인 가로와 광장, 공원, 사적인 생활공간으로 근린공원, 주위환경에 둘러싸인 개인 공간으로 여러 유형의 조형요소가 갖추어진 공간의 형태이다.

C. Alexander와 S. Chermayeff는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공간과 영역의 위계에 대해 공간영역을 관리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표 1】 커뮤니티에서 프라이버시의 6단계

구 분	프라이버시 영역
도시-공공적	공공의 장소, 시설, 도로, 공원
도시-반공공적	정부, 기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 공간, 법원, 병원, 공립학교
집단-공공적	공공의 서비스와 사적인 영역간의 결합이 일어나는 장소
집단-사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 대신 관리자에 의해 관리 되는 곳
가족-사적	가족의 공동적인 공간
개인-사적	침실

위의 【표 1】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도시는 크게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공공의 영역은 도로나 하수도 시설과 같은 도시 하부구조, 공원이나 광장등과 같은 공공공간과 공공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공간이란 도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세워지는 각종 시설들은 도시 공간에 포함되므로 도시에 공적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적감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할 의미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에는 개인 또는 특정집단을 위한 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능적 측면으로 일반 대중이 계층적, 시간적 제약없이 사회적 규범과 법규를 따르면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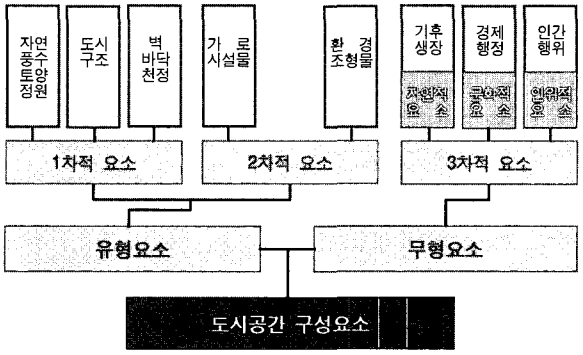
둘째는 형태적 측면에서 도시의 맥락에 시설물의 형태가 주어진 환경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시설이 시민에게 주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며 도시환경이 삶의 장소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활발한 도시의 구성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환경조형물은 종래의 조형개념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 환경과의 맥락관계 속에서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공간적 체험이 그 목표가 되는 공공예술작품인 것이다.

2) 도시공간 구성요소

Levin Lynch는 도시외부경관을 정적인요소와 동적인요소로 분류하여 환경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의 포괄적인 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된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는 몇 묶음의 이미지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이미지를 느껴지기 위해서는, Gestalt이론에 의한 배경과 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인지해석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경관구조는 놓여진 대상물의 형상과 관찰자의 선택적 해석은 물론 시간적,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4차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와 공간의 연관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환경이란 폭넓은 외부 상황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제도와 미술사의 흐름속에서, 예술품을 일컫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예술(Public Art)이란 범주에서 미술품들은 단순한 작가 개인소유의 창작물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 영역을 포함하며 공유되고 있다.



【그림 1】 도시공간 구성요소

3차원의 공간과 조형적 형태를 갖추는 조각(Sculpture)과 구조물(Art Works)은 정의에 대한 애매성과 모호함이 존재하지만, 각기 그 기능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야외조각, 공공조각, 옥외조각, 환경조각 등의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2-2. 환경 조형물의 개념

환경조형물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장소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변천되어 왔으며 오늘날 산업사회의 변모로 인해 다양해진 산업구조 만큼이나 수많은 형태와 용어로 칭해진다.

일반적으로 환경조형물, 환경미술(Environmental Art), 환경조각(Environmental Sculpture), 공공미술(Public Art), 공공조각(Public Sculpture), 야외조각(Outdoor Sculptur e)등과 함께 이들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법률어로는 '건축물 미술장식'이라고 하여 건축과 미술의 관계에 있어서 미술은 건축에 종속되는 관계로 보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4]

공공미술(Public Art)의 개념은 "공공(Public)의 의미와 미술(art)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 정무웅, 「도시의 외부공간과 경관」, 건축, p.89, (1992)

4) 이재복, 「환경조형물의 변천과 비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 (1999)

공공미술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the public places)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공장소에 놓여지는 미술,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미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5] 환경조형물의 또 다른 관점에서는 모뉴먼트(Monument/Monumental Sculpture)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환경조형물, 환경조각, 공공미술, 공공조각, 야외(옥외)조각 등의 개념을 거쳐 공공미술로써 정의내리고 있다.[6]

【표 2】 환경조형물의 분류

구 분		주요내용
설립목적	기념적조형물	주제상징의 기능을 발휘하는 조형물로서 역사적 의미, 실용적 목적, 기념비적 목적을 갖는다.
	기능조형물	도시공간의 유용성을 지닌 조형물로서 분수조각, 놀이조각공원(Recreation Park)등의 정서적 휴식 공간
	자유조형물	예술을 위한 미학적 조형물로서 도시민의 공감대 형성
지각적, 경험적 방법 (Art Brenner의 분류)	오브제로서의 조형물 (Sculpture-as-object or free sculpture)	미적기능을 위한 자유로운 형식의 설치를 위한 광장조각이나 풍경조각 등의 조형물
	건축으로서의 조형물 (Sculpture-as-Architecture)	건축자체 및 조각과의 병합관계를 이루는 조형이념이 이입된 건축물과 공존
	건축에 소장된 조형물 (Sculpture-in-Architecture)	부조를 포함하여 디자인에 건축의 기능 암시 및 장식 조형적 요소가 깃듦
설치환경[7] (Margaret A. Robinette의 분류)	상업형(Commercial)	은행, 백화점, 호텔, 쇼핑센터 등의 이미지 상징조형물
	공업형(Industrial)	연구소나 단지, 공단 내 산업화를 표현
	행정형(Governmental)	시청, 정부기관 및 관청 등의 상징적 의미부여
	시설형(Institutional)	병원, 보험회사, 특정회사 등 한정 개방공간의 조형
	교육형(Education)	각종 교육기관(초, 중, 고, 대학 등)의 교육목표 및 이상을 상징
	문화형(Cultural)	아트센터, 도서관, 시민회관, 박물관, 공원시설 등의 모두에게 오픈된 공간
	주거형(Residential)	아파트, 마을, 주택단지 등 광장공간의 주거환경조형물
	운수관련형 (Transportation)	공항, 항만, 철도역, 버스정류장등 시설과 관련된 조형
	전람회형(Exposition)	전람회, 박람회 등 옥외공간의 고유영역을 위한 조형

환경조형물의 개념은 공공성(the public)과 장소특수성(site specificity)보다는 인간의 내적 정신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조형물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도시,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에 의해 꾸며진 공간인 도시속의 인공물이기 때문에 건축, 조각, 조경, 환경미술의 개념을 전부 포괄하는 출발점인 '인간'을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미술의 개념은 '공공공간에 대한 환경조형'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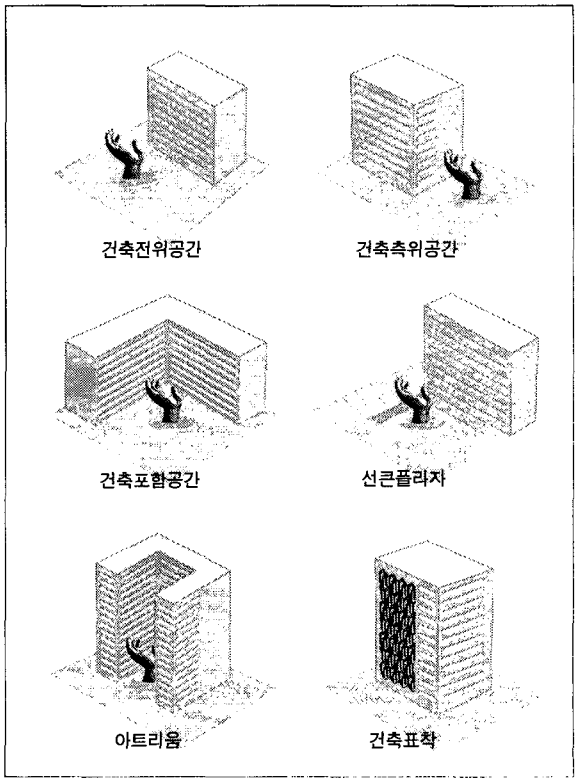
환경조형물들은 생활 공간속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느끼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작가의 개성이 표현되어야 하는 반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적이며 직접적인 표상을 가져야 한다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 더욱 난해한 부분은 모든 예술 작품에서 항상 문제제기가 되어 온 직접적이며 단순한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각가이자 미술이론가인 Art Brenner는 조각을 지각적, 경험적 방법으로 【표 2】의 내용과 같이 건축물과의 포함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Margaret A. Robinette는 설치환경에 따라 상업형, 행정형, 교육형, 주거형 등의 9가지 용도로 분류를 하고 있다.

2-3. 환경조형물의 유형

환경조형물은 독자적으로는 감각적 의미와 실용적 의미를 포함하며 도시의 환경조성이라는 공공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원이나 놀이터에 놓인 조형물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 뿐 만 아니라 유희적 의미를 넘어서서 정서를 함양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형건물에 접근하는 인간의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덜어주며, 도시의 외부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도시의 인간화 작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환경속에 문화공간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문화생활과 정서, 쾌적성에 기인하며, 공적 공간의 민주화라는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2】 건축물 유형에 따른 환경조형물

5) 강태희외 4인, 건축물 미술장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7, (1997)

6) 이재복, 「환경조형물의 변천과 비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 (1999)

7) M.A Robinette, 「Sculpture and Architecture」, New York Pergaman Press, p.p.32~39, (1971)

환경조형물과 도시공간의 조화는 공간의 환경요건에 적절한 작품을 제작, 설치하는 방식이 강조되며 도시환경요건은 단순히 주변공간의 물적요소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풍속, 자연조건, 관습 등이 내포되므로 다양한 요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환경조형물은 공간에 따라 설립목적에 따라 각기 유형이 구분되는데 【그림 2】와 같이 6가지 정도로 각각의 고유한 영역과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다.[8]

①건축전위공간(FR): 건축의 전면 광장으로 오픈스페이스를 관통하며 오브제와 건축이 주도로상의 시각으로 오버랩 되는 유형

②건축측위공간(SD): 오브제를 향한 주점고상의 시각이 측각을 이루며 오픈스페이스가 건축의 측면에 걸쳐 형성되는 유형

③건축포함공간(CO): 건축으로서 상당히 위축된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그 속에 오브제가 자리하는 경우로서 위축감 폐쇄감 정도에 따라 오브제와 관계밀도가 형성되는 유형

④선큰플라자(SU): 선큰(Sunken Plaza)된 바닥에서는 매우 안정되고 정제된 시각을 갖게 되며 건축의 외부공간에서 부분적인 공간을 이루며 오브제가 설치되는 유형

⑤아트리움(AT): 공간의 스케일이 실내정도의 척도를 넘어선 도시 스케일에 가까운 조건으로 광선, 공기, 음향 등의 환경조건이 조적된 공간으로서 훨씬 내부적인 안정감 속에 오브제가 위치하는 유형

⑥건축표착(FA): 건축외피의 한 부분 또는 전체가 대상이 되며 오브제는 2차원의 것으로부터 소극적 3차원 등이 있으며 시각이 일정방향으로 한정되며 오브제 자신의 위치선택이 중요한 유형

3. 환경조형물의 기능

3-1. 환경 조형물의 기능적 유형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역사는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의 역사라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형 활동은 아름다움과 쓰임새를 추구하고 형체(shape), 색채, 재료의 요소로 상호 유기적으로 성립된다.

현대의 도시 환경은 무미건조하고 폐쇄적이며 개인주의적 도시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은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쾌감을 제공해주는 오브제로서 보다 차원 높은 도시환경의 인간화에 그 기능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지각은 오브제를 전체적 인상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자신의 감성에 적절한 형태(Good Gestalt)를 선호한다. 형태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형태를 좋아하고 주어진 형태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만들어져 다듬어진 감상하기 쉬운 형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환경조형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는 요소는 선과 면이 윤곽을 결정하며 다음의 4가지 기능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9]

①심미적, 장식적 기능의 조형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배제하고 심리적 안도와 희열, 유쾌함을 줄 수 있도록 조형성과 색채감등이 고려된다. 장소와 건물을 정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 건물의 이미지 등이 고려되므로 조형성은 물론 장식적 기능을 갖게 된다.

대부분 작품의 크기 또한 휴먼스케일로 제작되며 놓여지는 장소, 분위기, 동선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여 친밀감을 보다 강조한다.

②상징적, 랜드마크적 기능의 조형

환경조형물이 놓여지게 됨으로써 그 공간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게 된다. 작가의 조형정신과 창조성, 작품의 형태적 유일성에 좀더 깊이 관련되는 상징성과 지역적, 공간적 컨텍스트와 관련지어지는 랜드마크적 기능이라 볼 수 있다. 환경조형물은 임의의 장소에 놓여짐에 따라서 그 주변의 활력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③놀이공간, 유희적 기능의 조형

환경조형물이 단순히 시지각을 자극하는 충족에 그치지 않고, 관객인 대중이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 직접만지고, 움직이고, 기어오르는 등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환경조형물 자체가 움직임으로써 유희적 연출을 하는 것과 대중과의 상호 물리적 관계로서의 놀이조형물, 대중참여 공동제작 등의 대중의 호응에 중요성을 둔 조형물 등이 포함된다.

④실용적, 공공적 기능의 조형

실용성기능이 바탕이 된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인체공학의 개념이 개입되어 있다. 스트리트퍼니처, 광고조형물, 분수조각과 같은 조형적 구조물이 이에 속하며 대중을 위한 상호보완으로 예술적 가치와 기능이 발휘된다.

도시공간에 조성되는 환경조형물의 기능은 연구된 내용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공간내의 지표의 기능을 발휘한다.

둘째, 공간의 구획을 제한해 주는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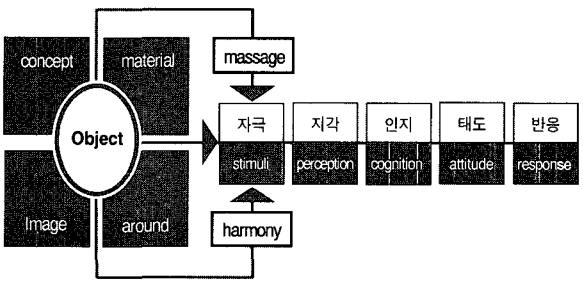
셋째, 시각적, 심리적 엑센트 역할을 한다.

넷째, 유용적 기능이 있다.

다섯째, 공적미술의 기능을 갖는다.

3-2. 커뮤니케이션 인지과정

형태는 감각기관 중 시지각에 의해 포착된 오브제의 본질적인 특성중의 하나로서 모든 형태는 인간의 관습적인 경험과



【그림 2】 환경조형물 커뮤니케이션 과정

학습에 의해 지각되는 것으로서 공간과 형태에 대한 지각과 심리적 영향은 관찰자의 경험치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8) 대한건축사협회, 「도시환경과 예술조형」, p.27, (1986)

9) 임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pp.199~200, (1998)

있다. 지각은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차이는 심리적 공간지각과 특정 공간이나 형태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의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인 지각과 인지는 연속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진다. 지각은 감각기관의 생리적 자극을 통해 외부의 환경적 제재를 받아들이는 과정 혹은 행위를 말하며 인지는 과거 및 현재의 외부적 환경과 인간행태를 연결지어주는 지각 또는 지식을 얻는 다양한 수단을 말한다.

인간은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이를 인지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이 몇 종류의 자극을 동시에 감지하며 이들로부터 자극물의 패턴을 감지하게 된다.[10]

환경에 대한 태도는 오브제나 이슈에 대한 느낌을 포함하며 지각을 통해 인지된 일정사물에 대한 느낌은 심상에서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정의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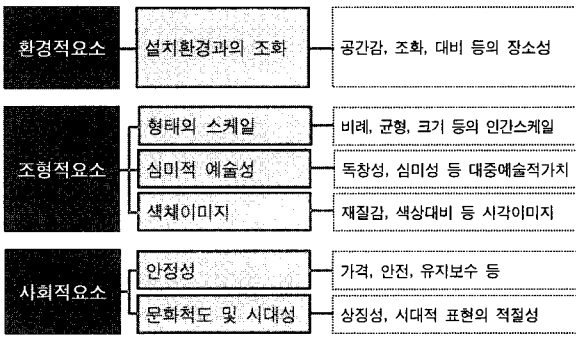
【표 3】 시각적 선호도의 변수

물리적 변수	재료, 색채, 질감, 형태등	감성이나 직관에 의존
추상적 변수	통일성, 조화성, 다양성, 식별성, 새로움등	선호 및 만족의 자체역할
상징적 변수	의미와 내용 및 명칭등	상징적 이미지
개인적 변수	연령, 성격, 문화적수준, 민족성등	개인적 변수

위의 【표 3】은 시각적 선호도에 따른 변수를 인지하는 감각영역을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감상자들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에 대한 조화와 반응에 대한 연구는 바람직한 환경조형물의 설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환경조형물 이미지 평가요소 및 분석관점

오늘날의 환경조형물의 주요기능은 환경의 예술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표현하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일상적인 도시가로환경에서 무의식적인 조형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브제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졌다.



【그림 3】 환경조형물의 이미지 평가요소

10) 임승빈, 환경심리행태론, 보성문화사, pp.42~48, (1986)

환경조형물은 【그림 3】과 같이 환경적요소, 조형적요소, 사회적요소의 포괄적인 관점에서 평가 되어야하며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조건이 변화되며 주제나 형태, 재료선정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하고 작품의 스케일, 건물의 배경이미지, 환경조형물의 색에 대한 조화, 조명등 특정 환경요소와 색채에 대한 심미적인 효과 등이 세심하게 반영되어야한다.

환경조형물이 도시공간에 존재하게 됨으로서 모두의 것이 되고 대중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조형물이 흉물스런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형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행정가 등이 상호 노력하여 설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과 위치, 형식, 내용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11] 환경조형물은 실내조각품처럼 작품감상분위기를 조성하여 시각적,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친숙함과 직접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12]

도시환경에 있어 환경조형물이 옥외로 설치됨으로써 시각적 명시성과 주목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표 4】 평가요소의 분석관점[13]

영역구분		분석관점
환경적 요 소	환경창조	-환경순화에 의한 동질성과 총체성 형성 -대비에 의한 개조나 조화, 강조, 승화 -성장에 의한 환경의 역동성과 심미성 신장 -새롭고 특성 있는 쾌적한 환경의 연출 -환경특성을 극대화한 조형공간의 창출 -배경, 전경, 종합공간과의 현상학적 상관관계
조형적 요 소	조형역할 형태의질	-형태의 공간, 양감, 질감, 색채요소의 적절성 -형태의 일반원리와 특수원리 분석 -형태와 외부환경조형의 특성분석 -촉각적 욕망과 접근성과 개방성 추구 -외부환경공간과 형태와의 적절성 검토 -시야의 명시도, 인지도 및 형태의 명료성 -작가의 의도 및 독창성 검토
사회적 요 소	시각공해	-조형요소의 훼손과 부적격성 검토 -조형형태의 시대적 상황의 저해요인 -원리에 미흡하거나 상치되는 요인 -자극에 의한 심리적 불안 -형상에 의한 조형거부감과 시각공해

환경조형물의 평가 및 분석관점으로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환경과 조형의 질적 수준, 조형역할에 의한 시각효과, 새로운 환경의 창출 등 관찰과 감상에 의하여 다측면적으로 분석하되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 그리고 실증적 방법을 포괄한 종합적인 방법의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4. 심의제도

4-1. 제도적 고찰

미술장식제도의 취지는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민간건축주가 도시문화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촉구하

11) 김화연, 건축과 환경조각, 건축문화, p.65, (1987)

12) 이현택 · 이정, 가로의 미학, 경북대학교출판부, p.245, (2000)

13)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p.69, (1989)

는 임무 전가에 가까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않고 시작되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문화와 예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의 중요성과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필요성이 조성된 시기이다.

【표 5】 미술장식제도의 변천고정

	준비기 (1982~84)	건축과 소관기 (1984~94)	문화과 소관기 (1995~현재)
배경	-권장으로 도시 미관에 대해 관심이 조성된 시기	-'86아시안,'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 먼저 적용하고 (1984~88) 전국적으로 적용(1988~94)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지침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
주요 내용	-문예 진흥법과 시행령에 권장 조항 신설 (법적 효력 없음) -처마높이 13m이상 -연면적3,000㎡이상인 건축물 중 문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축물 -설치비용: 건축비용 1%이상 -종류: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11층 이상의 건축과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1%금액에 상당하는 예술품을 설치하는 조항 -설치장소를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규정 -미술장식품 설치에 있어 위치, 크기, 규모 등 조화여부 등을 결정함 -착공 전 미관조성을 위해 예술위원회의 신고하여 심의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조례 규정 -건축물 규정의 상세화 -건축물 용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비율제 적용 -미술장식품의 종류 다원화 -예술성과 가격대까지 심의

위의 【표 5】와 같이 미술장식 조항의 변화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술장식품 설치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다.

둘째,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조례로 완화되었다.

셋째,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대지로 국한되어 있다가 내부 또는 공공장소로 확대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예술성과 가격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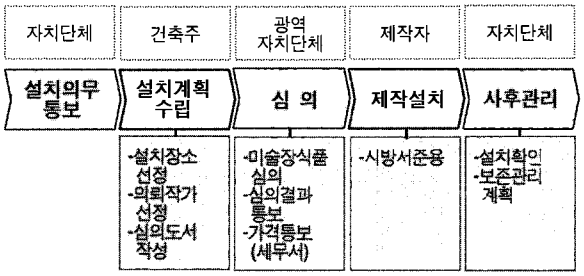
4-2. 설치 프로세스

환경조형물 설치과정은 10,000㎡이상의 설치의무대상 건축물과 문화 및 집회시설 5,000㎡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중 설치를 원하는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설치계획수립은 화랑, 아트컨설팅 회사가 역할을 수행을 하며 외국의 공공미술 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설치에서부터 기획관리 역할을 담당 국내에서는 이면계약, 담합을 조장하는 브로커의 출현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건축주와 미술가와의 계약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술장식제도가 지각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인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각박한 도심을 개성 있고 쾌적하게 만듦으로써 기업이미지는 물론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친밀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흐름과 같이 건축물 신축 또는 개축시 설치의무가 있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단계는 신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을 통보하고 건축주는 장소 및 작가를 화랑이나 아트컨설팅 업체에 작가를 추천 의뢰한다.



【그림 4】 미술장식품 설치프로세스

건축주는 추천작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작가를 최종 선정하며 건축주가 심의도서[15]를 작성할 때 작가의 설치계획서를 포함하며 자치단체에 심의신청을 하게 되며 광역단체 소관부서에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되면 시방서대로 지반공사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된 후 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는 원안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 승인필증을 교부하며 3년마다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보존관리 한다.

4-3. 심의방식 및 현황

국내의 미술장식 심의제도는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의무설치의 강제조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제한된 틀 안에 갇혀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에 익숙한 현 사회에서 미적효과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다양한 계층을 골고루 만족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16]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설치물이 법적으로는 개인소유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설치되면 공공성을 지녔다는 관점에서 도시환경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국내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건물장식이라는 공공미술의 협소한 기동성에만 의존하고 민간건축가의 건축규제라는 불만요인에 따른 부수적인 요인이라 보는 관점 차이에서 오는 낮은 인식 등에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공공장소를 조성한다는 관점의 방향제시 차원에서 권장하거나 의무화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단체는 도시환경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전반을 통합하려는 정책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지역의 특색 있는 공

14) 강태희외 4인, 앞의 책 p.15

15) 심의도서 내용구성: ① 건축개요 ② 주위현황도 ③ 건축물투시도 ④ 미술장식품 개요 ⑤ 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⑥ 작품설명서 ⑦ 작품사진(정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⑧ 작품도면(규격표시,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⑨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16) 이재국, 디자인 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p.221, (2000)

공미술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지역 중심의 컨셉이 존재하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기존의 환경조형사업들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행정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공공미술 장식품 사업에도 자금조성을 배정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표 6】은 현장방문을 통한 담당자 인터뷰와 근거서류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각 자치단체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기초로 정리되었다.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이 이관되면서 각기 지역상황에 따른 유형으로 적용됨을 볼 수 있다. 대도시일수록 예술성에 대한 배점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의 규모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인원수가 양적으로 보완되었다.

【표 6】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현황

구 분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행정절차	각 구청품의 ►시청 심의	각 구청품의 ►시청 심의	시청에서 총괄	각 구청품의 ►시청 심의
건축물의 규 모	-권장: 가. 문화 및 집회시설[17] 5,000㎡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의무: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심의위원 구 성	80인 이내[18] (13인 이내 구성)	20인 이내 (15인 이내 구성)	30인 이내 (11인 이내 구성)	50인 이내 (13인 이내 구성)
심의방법	심의도서	심의도서	심의도서	심의도서
심의항목 및 배점	미술장식의 예술성(50) 건축물과의 조화(10) 환경과의 조화(10) 도시미관기여도(15) 안전·보존성(5) 가격의 적정성(10) *공개모집(가산점 10)	미술장식의 예술성(30) 건축물과의 조화(10) 환경과의 조화(10) 도시미관기여도(10) 안전·보존성(10) 가격의 적정성(30)	미술장식의 예술성(30) 건축물과의 조화(20) 환경과의 조화(20) 도시미관기여도(20) 가격의 적정성(10)	미술장식의 예술성(40) 건축물과의 조화(10) 환경과의 조화(10) 도시미관기여도(20) 가격의 적정성(20)
승인점수	평균 70점 이상 70점이하 재심 또는 탈락	평균 60점 이상 60점이하 재심 또는 탈락	평균 60점 이상 (최고, 최하점수제외) 60점이하 재심 또는 탈락	평균 60점 이상 60점이하 재심 또는 탈락
심의현황 -2004년- (승인율)	250/429 (58.3%)	48/49 (98%)	14/15 (93.3%)	112/131 (85.5%)
미 술 장 식 품 투자비율	표준건축비의 -20,000㎡까지 0.7% -20,000㎡이상 0.5% -공동주택 0.1%	표준건축비의 -20,000㎡까지 0.7% -20,000㎡이상 0.5% -공동주택 0.1%	표준건축비의 -20,000㎡까지 0.7% -20,000㎡이상 0.5% -공동주택 0.1%	표준건축비의 -20,000㎡까지 0.7% -20,000㎡이상 0.5% -공동주택 0.1% -근처부은 0.5%
심의부서	문화환경조성팀 문화과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실 문화기반조성과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심의 및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적인 요소들이 관련지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적용될 때 적절한 평가기준이 추출되어진다.

각 요소마다 세분화된 평가척도는 포괄적이고 체계화된 평가시스템의 근간이 되어 환경조형물의 유기적인 기능이 확대되고 도시민의 미적가치가 다양화되는 현 시점에서 평가툴의 요소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부분이다.

미술장식품 승인률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2004년 한 해 동안 49건 중 48건(1차승인 42건)이 재심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1건만이 심의유보로 보류된 상태이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15건 중 14건(1차승인 3건)이 재심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1건도 재심 청구 중에 있다.

【표 7】 서울시 미술장식품 심의 결과(2000~2004)

(단위 : 작품수)

년도	심의 현황	계	미술장식품					승인율 (%)
			환경 조형물	조형예술물				
				회화	벽화	비디오 아 트	공예등	
계	심의	1,803	1,454	290	19	1	39	67.9%
	승인	1,225	935	239	15	1	35	
2000	심의	265	208	47	4		5	68.7%
	승인	182	127	44	6		5	
2001	심의	318	234	55	4		15	64.5%
	승인	205	140	50	3		12	
2002	심의	342	268	68	5		1	73.9%
	승인	252	180	63	4		5	
2003	심의	449	386	53	2		8	74.8%
	승인	336	289	40	1		6	
2004	심의	429	359	58	2	1	9	58.3%
	승인	250	199	42	1	1	7	

부산시의 경우는 85.5%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표 7】의 내용과 같이 최근 5년간 승인률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타 도시에 비해 60%내외의 낮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는 심의요건과 심의배점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설치된 전체 미술장식품에 대한 환경조형물의 비율이 볼 때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환경조형물의 양적인 비중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4-4. 제 안

1)심의 방식의 관점

-심의위원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참여로 공공성을 지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심위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제작 및 순수미술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시민 참여의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심의부서는 공정성 및 질 제고를 위해 폭 넓은 전문가 인력풀(Pool)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부서와는 별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객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재심에 대한 횟수를 제한하여 질적 제고에 대한 심의의 확고한 의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2)심의 방법의 관점

-미술장식품 중 환경조형물과 조형예술물(회화, 벽화, 비디오 아트 등)과는 차별화된 심의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설치계획안 1안에 대한 채택여부보다는 2가지 이상의 대안

17) 건축법시행령 2조 사항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하며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

18) 서울시 심의위원현황(2005. 2월 기준) 80명: 환경 3, 건축 3, 도시계획 3, 시의원 5, 조각 30, 서양화 10, 한국화 7, 평론 6, 디자인 3, 공예 2, 서예 2, 기획전시 2, 미술·박물관장 2, 미디어아트 2

을 제시하여 다중평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사항을 평가할 때 설치계획서의 평면적인 심의도서계획만으로는 환경과의 조화, 건축물과의 조화, 미관기여도등의 현장감을 종합적으로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3D시뮬레이션이나 축소모형 활용,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기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3)제도적 관점
-환경조형물은 공공성을 지닌 만치 지자체의 지원사업 및 문화 거리 조성계획 등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대민홍보가 요구된다.
-자치단체는 테마가 있는 공모전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여 기증하거나, 굿 조형물 시상제도로 공공성 부각을 통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공모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조형물 설치비용에 대한 예치금 제도를 두어 시간부족으로 인한 부조화 된 환경조형물의 형식적인 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
-미술장식품 설치는 조각이나 미술품의 장르를 초월한 컨셉있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조형물이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설치환경 역시 공공성을 지닌 만치 건물내에 국한되지 않고 거리나 녹지로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전국공모를 하여 선정된 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는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요인은 합리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5. 결 론

도시환경은 자연과 인공물을 조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개성있고 친 인간적인 도시를 추구하는 것이다
환경조형물은 도시공간의 산물 그 이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대변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휴머니티에 바탕을 둔 대중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공간의 환경조형물은 인간의 환경이자 도시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책임 있는 디자인의식이 형성될 때 친근한 이미지와 안정감을 주는 도시환경으로 문화적 근간이 될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진전되는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지각적 창작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현대미술에서의 조형개념을 바꾸어 놓았고 표현 방식과 영역을 확장시켰다. 작품 속에는 기능적인 면 즉 전자, 기계, 열역학, 빛, 소리, 움직임과 같은 비물질 요소가 도입되어 우연성과 신비성 효과를 예술과 일상생활에 통합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므로 21C 시대적 기조를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도시 환경조형물은 의미 있는 질서를 창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사회와 환경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건물주와 작가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상황과 도시민의 미래를 위한 심의방안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의미를 둔 연구이며 오브제와 설치환경 등에 대한 심리적 변수 등은 지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 이재국, 디자인 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2000)
- 이현택 · 이정, 가로의 미학, 경북대학교출판부, (2000)
- Conrad Adolf Fiedler, 정미희 역, 조형예술론, 미진사, (1985)
-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1989)
- 김인수 역, 조형형태론, 미진사, (1986)
- 김화연, 건축과 환경조각, 건축문화, (1987)
- 임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대한건축사협회, 「도시환경과 예술조형」, (1986)
- 강태희 외 4인, 「건축물 미술장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 한국과학기술원, 「도시환경장치물의 디자인체계화와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1)
- 이재복, 「환경조형물의 변천과 비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무웅, 「도시의 외부공간과 경관」, 건축, (1992)
- M.A Robinette, 「Sculpture and Architecture」, New York Pergaman Press, (1971)
- Contemporary Sculpture Symposium, Sculpture in Places, Tokyo Chuokoron-Sha Inc, (1983)
- Malcolm Miles, Art for Public Winchester School of Art Press, (1989)
- Arlene Raven edt., Art in the Public Interest, UMI, (1989)